



Ewha Medical School News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제9호 <2006.9>

발행인: 이순남 | 편집인: 정성철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서시 양천구 목동 911-1 | 전화 02-2650-5707 | 팩스 02-2653-8391

♣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소식

◆ 이화의학전문대학원, 수시전형 2차 합격자 20명 발표

- 국내 최상위권 대학 학생 골고루 분포 -

200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수시/특별 전형에서 총 24명(수시전형 20명, 특별전형 4명)을 모집한 결과 수시전형 2차 합격자 20명을 발표하였다. 이들 중 의학교육입문검사에서 2개 과목 이상의 석차 백분위 점수가 50.0 이상이고 나머지 과목의 석차 백분위 점수가 30.0 이상인 자에 한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다. 수시전형 합격자의 출신대학 분포를 보면, 이화여대를 비롯하여 국내외 최상위권 대학이 골고루 분포하였다. 출신학부별 분포 조사에서는 자연과학대학이 12명(60%), 공과대학이 4명(20%), 사회과학대학이 2명(10%), 간호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순남 의과대학장은 “지원자가 모두 우수하여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상의 인재가 균형 있게 선발되었다. 다양한 전공과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닌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이화의 울타리 안에서 여성로계를 선도할 큰 꿈을 펼치길 바라며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통해서도 많은 우수여성인재들이 이화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11일 의대 홈페이지

(<http://medicine.ewha.ac.kr>)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통합과정 집중회의 개최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통합과정 집중회의’가 9월 14일 오후 5시 30분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각 통합과정 책임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먼저 기초 의학소위원회에서는

박혜영 교수가 지금까지 진행된 M1 시간표를 발표한 후 모든 교수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PDS소위원회에서는 권복규 교수가 · ICM 위원회에서는 한재진 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또 기초임상 통합소위원회에서는 홍기숙 교수 M2 과정을 발표한 후 토론하였으며, 임상의학 소위원회에서는 김경호 교수가 M3/4의 현재 과정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운영과 지원 안에 대한 발표 및 종합 토론 후 집중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 4 학년	선택실습
통합	통합	임상 실습	
임상 조기 교육		환자-의사-사회	

◆ 의학전문대학원 정시(일반전형) 입학설명회 개최



‘200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시(일반전형) 입학설명회’가 9월 15일 이화여대 이화-SK텔레콤관 컨벤션홀에서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입학설명

회는 모집요강, 졸업 후 진로, 장학제도 안내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새롭게 추가된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안내 순서를 통해 많은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주었다.

♣ 대외협력위원회 활동소식

◆ 이화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9월까지 약정된 금액은 총 829,738,050원입니다. 2006년 7월에서 9월까지 노바티스에서 20,000,000원을, 슈어메디컬에서 10,000,000원을 각각 약정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을 비롯한 동창님, 학부모님 및 이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정성이 모여져 향후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약정 문의 :02) 2650-5707)

<2006년 7~9월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약정 현황>

후원자	금액
노바티스	20,000,000원
슈어메디컬	10,000,000원
계	30,000,000원
총 누적 계	829,738,050원

◆ 의과대학에서는 기독교 여성 의료인 양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이화의대 선교 후원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후원 기금은 의학관 B동 712호에 학생들을 위한 기도실 마련 · 의과대학 채플을 위한 김옥길홀 그랜드 피아노 구입 · 이화봉사단 우즈베키스탄 선교 후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 말씀코너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화의대의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는 데에 더욱 의미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 의과학연구소 소식

◆ 의과학연구소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의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research.ewhamed.ac.kr>)가 리뉴얼을 거쳐 오픈하여 9월 11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교수 로그인 시 교번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 의과학연구소 기자재 확충

의과학연구소가 잇따른 기자재 확충을 통해 첨단 기자재 보유 연구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에 확충된 기자재는 PhosphorImager, Gel Doc XR, Luminometer 이며 이와 관련하여 9월 4일 의과학연구소 및 의학관 B동 706호에서 20여명의 연구원 및 대학원생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및 기기설명회가 열렸다.

♣ 의과대학 새소식

1. 의과대학 소식

◆ 'White Coat Ceremony' 개최



의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White Coat Ceremony가 8월 4일 오후 2시 의학관B동 1006호에서 열렸다. 기도, 인사말, 축하, 특강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

에는 이순남 학장, 윤건일 의무부총장, 서현숙 목동병원장이 직접 의학과 3학년 학생 85명 모두에게 흰 가운을 입혀 주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마지막 순서로 학생,교수들이 다 같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였고, 이후 학생들이 깜짝이벤트로 스승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노래로 전달하여 참석자들이 모두 환호하였다.

◆ 생명윤리정책연구소 개소식 열려



생명윤리정책연구소(센터장 장영민 교수) 개소식이 7월 5일 오후 3시 법학관 316호에서 보건복지부 차관, 의무부총장, 의대학장,

연구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생명윤리법연구소'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정책연구소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돼 '생명윤리정책연구소'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된 것. 생명윤리정책연구소는 앞으로 생명윤리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체계화, 국제 기준에 맞는 탄력성 있는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생명윤리정책의 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권복규 교수·정성철 교수가 생명윤리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권복규 교수는 정보관리팀을 맡고 있다.

◆ 임상실습 OT 및 OSCE 시행

2006년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평가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통합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임상실습 OT 준비위원회, OSCE 위원회 등이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관련 교수들이 참여하여 임상술기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OSCE 문항들은 임상실습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임상 실기 습득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임상실습 후 평가를 의대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로그인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화하였다.

한편 2006학년도 2학기 의학과 4학년 임상 실습은 9월 23일 종료되었다.

◆ 의사국가시험 모의고사 실시

의사국가시험 모의고사가 의학과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3학년 모의고사는 지난 7월 27일과 28일 김옥길홀에서 실시되었으며, 4학년 국시대비 모의고사(임상종합평가 시험)는 1차 시험이 지난 8월 17일과 18일에 김옥길홀에서 치러졌다. 4학년 대상 2차 모의고사는 10월 23일과 24일, 3차 모의고사는 11월 6일과 7일이 치러진다. 이번 모의고사를 위해 국시위원회 (위원장 성연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실무 소위원회, 문항평가 (R형문제 포함) 회의, 2차 문항평가회의 등을 개최하며 준비하였다. 한편 2007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제 71회 의사국가시험은 확장결합(R)형 출제비율이 5%에서 7%로 늘어남에 따라 총 38문항이 되었으며 시험 시간도 10분 길어지게 되었다.

◆ 의학과 3,4 학년 자유선택 실습 실시

2006학년도 2학기 자유선택실습이 김경호 임상교무부장 책임 하에 시행되고 있다. 3학년 학생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세신촌세브란스·영동세브란스·한동대선린병원·서울대병원 등에서, 4학년 학생들은 이대목동병원·강서미즈메디병원·한강성심병원·서울방송·강남성모병원 등에서 실습을 수행 중이다.

◆ 이화여대 의과대학장배 전국 의대생 검도대회 열려



이화여대 의과대학장배 전국 의대생 검도대회가 7월 9일 이화여대 체육대학 홀에서 8개 의과대학 검도부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경기는 남녀 단체전과 개인전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화여대가 여자 단체전 1위를 차지하였다. 여자 개인전에서도 윤수정 학생이 1위를, 전지현 학생이 2위를 차지하였다.

2. 교수 및 의료원 동정

1) 교수 동정

◆ 이순남 교수, 18대 의과대학장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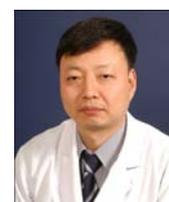


이화여대는 이순남 교수를 8월 1일자로 18대 의과대학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순남 신임학장은 지난 78년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암센터에 수학했으며 97년 임상교학부장 98년 내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 의학교육실장으로 활동했다. 신임학장으로 선임된 이순남 교수는 다양한 학교행정경험과 학회에서의 활발한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이화여대의 이끄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신임 교수 (11월 1일자)

병원	전공	이름
동대문	혈액종양내과	남은미
동대문	호흡기내과	류연주
목동	순환기내과	김종윤

◆ 한재진 교수, 의학교육실장 임명



한재진 교수가 제1대 의학교육실장인 이순남 교수에 이어 9월 1일자로 제 2대 의학교육실장에 임명되었다. 한재진 교수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의학교육실 차장으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김양우 교수, 영국 IBC 2006년도 의학자 선정



김양우 교수가 최근 영국의 IBC 국제인명센터에서 '2006년도의 의학자' 로 선정됐다. 김양우 교수는 미국성형외과 학회지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양에서 유일한 영어 성형외과 잡지인 인도성형외과 학회지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최병욱 교수, 국제신경근육질환학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최병욱 교수가 7월 2일에서 7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 11차 국제신경근육질환 학회” 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이 학회는 신경질환·근육질환 학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회이다.

◆ 하은희 교수, 2006학년도 연구비 우수교원 선정



하은희 교수가 2006학년도 연구비 우수교원에 선정되어 9월 27일 12시 미관식당에서 열린 총장초청 오찬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초청 대상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여입된 교외연구비의 개인 지분액이 우수교원 조건을 충족한 교원이었다.

2) 의료원 동정

◆ 이화의료원, 병원 첨단정보화 앞장서



이화의료원은 9월 11일 오후 4시 목동병원 부속회의실에서 아이브릿지와 나노생크사와 U-Hospital 및 의료/헬스 콘텐츠 구축 협력조인식을 갖고 병원 첨단정보화에 적극 나섰다. 이날 조인식에서는 목동병원

유방암센터에 LCD-TV를 이용한 U-Hospital 사업과 병원 고객을 위한 의료/헬스 콘텐츠 사업을 시범적으로 벌이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화의료원은 고객들에게 병원 소식 및 건강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헬스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 축적해 나가게 된다.

◆ 이대동대문병원, '2006 굿 브랜드 상' 수상

이대동대문병원이 7월 7일 종합일간지 인터넷 언론 뉴스웨이가 주관하는 '2006굿 브랜드 상' 의 우수의료서비스 부문 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웨이는 동대문병원이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평가에서 최상위권 평가를 받는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최근 악화된 의료경쟁환경에서 보여준 위기관리능력과 탁월한 경영평판 등이 수상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 동창회 소식

◆ 김화숙 동창회장, 수해지역 구호행사 앞장서



김화숙 동창회장 (보건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위원장)은 7월 21일 강원도에서 장동익 의협회장, 사회공헌협의회 회원 등 21명과 함께 수해

지역 이재민 구호행사를 진행하였다. 수재민 구호물품으로 쌀, 화장지, 티셔츠, 가루세제 등 약 1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였고 수재민복구에 노력하고 있는 평창군경찰서에 부식과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 의대 동창, 잇따른 장학금 후원

이지연 동창 (16회, 미국 뉴저지) 이 의과대학 장학금으로 1천불을 송금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1천불씩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적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익명을 요청한 37기 재미회원이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하였다.

◆ 오기근 동창, 국제유방초음파학회장 피선

오기근 동창 (17회, 연세의대 교수)이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기간 중 국제유방초음파학회 상임위에서 회장에 피선됐다. 오 교수는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유방초음파 분야를 이Rm는 리더 역할을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지현숙 동창, 대한혈액학회 학술상 수상

지현숙 동창 (19회,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 지난 5월 26일, 27일 양일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47차 대한혈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오지원 동창, 세계 인명사전 등재

오지원 동창 (37회, 경상의대 교수) 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며, 올해 첫 발행되는 Marquis who's who in Asia, 세계 제2대 인명사전인 영국의 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되게 되었다.

◆ 조종남 동창,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조종남 동창(24회,조윤희산부인과원장)은 구로구의회사회고문으로써 가정 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악여성 센터에 있는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6월20일부터 25일까지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무료검진을 실시하였다.

◆ 송성희 동창, 대한기독교여자의사회 신임 회장 선출

송성희 동창 (10회,서울제일산부인과의원) 이 최근 열린 '제55차 대한기독교여자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되었다. 송 원장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대한가정의학회 회장·한국여자의사회 이사 등을 지냈다.

◆ 홍성운 동창, '원자력 안전위원' 위촉

홍성운 동창(신일병원) 이 과학기술부로부터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원자력 안전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원자력 안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홍성운 동창은 현재 한국여성 원자력전문인 협회장과 한국 원자력연구소 이사, 세계 여성 원자력 전문인 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 의과대학에서 알려드립니다 ♣

- 의대 대학원생 대상 기숙사 추가 입사 모집

새로 신축한 한우리집 대학원관에서 추가 입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이화알프스 어린이관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http://dmtrygr.ewha.ac.kr/index_gr.asp)

- 의대소식지 원고 모집

의대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heejee77@ewha.ac.kr)

- 의대 소식지는 의대 홈페이지 (medicine.ewha.ac.kr) 내 의과대학소식/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대동창 주소 변경 문의 (동창회 사무실 T.2650-5782)

♣ 해외 연수 보고

“UCLA (Revolon Breast Cancer Center & Gonda Breast Cancer Research Laboratory) 를 다녀와서 ”

외과 문병인 교수



막상 연수를 떠나려니 눈에 밟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나를 믿고 따르던 환자들, 학회의 여러 산적한 일들, 친구들... 가리듯 가는 연수여서 아이들은 이미 커서 대학교 1학년, 고1 학년인지라 같이 동반해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난감하였다. 그러나 가족은 함께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두 녀석 다 휴학하고 떠나기로 하였다. 미국에서의 1년이 또 다른 인생의 자양분이 되 줄 것을 기대하면서...

2005년 9월 26일, 예정했던 것보다 30일 늦게 LA 공항에 내렸다. 캘리포니아는 사막 기후여서 여간해 비가 오지 않는 날씨인데 우리 가족이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랑비가 내렸다. 마중 나온 동서가 날보고 별종이라서 날씨가 알아본다나~. "나를 환영하나 봐요. 너무 기뻐 날씨가 우나 봐요! 올 사람이 드디어 왔다고..." 너스레를 떨며 임시 숙소인 처형 집으로 향했다. 일주일만 학교 당국에 신고하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집과 자동차를 구하는 등 정신없이 흘러갔다.

드디어 UCLA !!! 새로운 실험실 얼굴들이 나를 맞았다. 한국을 떠나 올 때는 여러 선후배들이 긴 시간 못 보는 아쉬움과 건승을 기원해주는 자리를 여러 차례 마련해 주었기에 이곳에서의 또 다른 환영을 내심 기대하였지만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한쪽과 음료로 환영 만찬을 대신하는 게 아닌가! 약간은 섭섭했지만 이곳 사람들의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보는 것 같아 좋았다. 미리 이곳으로 연수와 있던 소아과 김혜순 교수님, 안과 임기환 교수님이 나의 너스레에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전초전이라며 함께 웃어 주었다. 아무튼 혼자가 아니라 더더욱 힘이 났다.

UCLA campus는 역사의 흐름대로 법과대학과 인문대학 등이 밀집한 North Campus와 이공 계열의 대학들이 밀집한 South Campus가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그 유명한(?) Le Conte Ave와 연하여 Medical Complex가 자리하고 있었다. UCLA 병원의 역사는 50년, 우리 이화 대학에 비하면 10년이나 뒤진 곳이지만 세계 제일의 내분비 연구 및 각종 연구소들로 초만원에 이른 연구의 메카로 우뚝 서있었다. 50년을 자축하는 현수막이 Medical Complex 곳곳에 걸려 있었다. 병원 건물은 서쪽의 Medical Center와 동쪽의 Medical Plaza로 이루어져 있고, 자금 규모에 따라 각 과의 연구소들이 사이사이 늘비해 있는 구조이다. 유방암 센터는 Medical Plaza 건물에 위치하여 있고 유방암 연구 센터는 Medical Center와 연해 있는 Clinical health science 건물 7층에 위치하고 있다. 유방암 센터는 외과 소속의 Surgical Oncology에 속해 있으며 유방 외과, 진단 방사선과, 병리과, 혈액 종양 내과, 방사선 종양 학과, 성형외과, 재활 의학과, 정신과, Social Worker, Nutritionist 등의 전문가들이 그야 말로 철저한 협진 체제로 유방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외과의 각 파트 교수들은 누구랄 것 없이 모두 각자 나름의 연구실과 Lab을 운영하면서 최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의 지도 교수인 Helena Chang 교수는 유방암 센터장이면서 Gonda Breast Cancer Research Laboratory의 책임 교수였다. 중국계 미국인인데 면역학에 특별한 조예가 있었으며 병리과를 전공했던 외과 의사

답게 50대 후반의 지긋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의 정열을 고스란히 간직한 분이였다.

내가 주로 지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은 Clinical Health Science 건물 7층에 있는 Gonda Breast Cancer Research Center였다. 이곳은 Gonda Foundation에서 주는 일정 분의 연구비 외에도 5년간 약 5백만 달러의 연구비를 획득한 곳이었다. 여러 개의 Project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임상 연구는 별개의 팀으로 따로 운영되고 있었고 기초 연구로 유방암에 대한 Cancer Vaccine 개발, 유두 분비물에서의 암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단백질을 찾으려는 연구, 신보조화학요법 후의 치료 반응 군을 식별할 수 있는 단백질을 찾으려는 연구 등이 있었는데 내가 관계한 연구는 Cancer Vaccination 개발이었다. 생쥐(muc-1 transgenic mice)에서 muc1 유전자와 IL2 유전자를 삽입한 BCG의 유방암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인데, 이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반드시 BCG접종과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아야 했고, 이어서 동물 실험을 위한 일반적인 수칙과 mice handling 등을 위한 교육을 2시간 받고 시험에 통과하여야 했으며, Biohazard 물질이나 균을 취급하기 위해서 Biohazard Waste management, Biohazard Transport, Clean bench 사용법 등 실험과 관계된 본인, 동료, 사회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대단하였다. 마침 같은 외과의 한 교수는 이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관계로 내가 도착하기 2주 전 실험실 폐쇄 조치를 당하였으며 모든 연구비를 반납하고 2년간 연구 금지의 조치를 당했다고 하였다. 이런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미국을 이끌고 있는 힘이란 것을 실감했다. 거의 두 달여 동안 실험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certificate를 모두 받은 후 본격적으로 실험에 참여 할 수가 있었다.

Mice ear를 조금 잘라내 DNA를 뽑아낸 후, PCR 기법으로 muc1 유전자 발현 유무를 조사하여 MUC1 발현 female mice를 골라내어 차기 실험을 위해 사육하였고, BCG-vector, BCG-IL2, BCG-MUC1, BCG-MUC1-IL2 등의 vaccine 실험군과 대조군 BCG균을 각각 MUC1, IL-2 발현을 western blot과 ELISA test로 확인하여 최적의 농도로 유지하게 준비하는 과정, CTLL cell에서 BCG에서 생산된 IL-2의 Bioassay, MUC-1 transfected mouse mammary cancer cell line의 MUC1단백의 발현 유무를 IHC로 확인하는 것, mice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BCG 접종, cancer cell injection, 이후의 암세포가 자라는 양상을 매일같이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희생시켜 종양을 적출하고, 각 실험쥐의 spleen을 제거하여 purified muc1 단백질에 노출시킨 후 MUC1-specific Interferon Gamma 및 IL4의 발현 양상을 ELISPOT으로 검사하기 등등, 숯한 실험들을 아주 즐겁게 수행하였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BCG-MUC1-IL2로 미리 면역 능을 올린 쥐에서 암세포의 자람이 없거나 둔화됨을 관찰할 때의 희열! 희열! 희열! 외과 의사인 나로서는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당시의 젊음과 용기가 용솟음침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내면 깊숙이 숨겨진 기초 연구에 대한 욕망을 거침없이 내뿜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던 같다. 한편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엄청난 연구에 대한 지원과 그곳 학자들의 탐구욕이 샘이 나도록 부러웠지만, 그들의 숯한 인력이 우리들이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나라의 우수한 학자들이라는 사실에 우리에게도 정열만 식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들과 견주어 연구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다.

외과 의사는 특히 암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의사는 눈에 보이는 암 덩어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 덩어리마저 분자 수준까지 내려가 제거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은사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였다. 기다려라! 암세포들아! 한국의 학도들이 너를 없애 주마. 홀로 다져 보는 이 소리가, 이 정열이, 이 소망이 스러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소원하면서.....여러 교수들과 이 귀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